

# 서민 가계 동반자 '광주은행 중금리대출'

### 올해 1100억원...출시 16개월만에 4000억원 돌파 사잇돌대출 전은행권 11% 차지... 직장인퀵론도 인기

이달 들어 정부는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플러스·바퀴 트림론의 대출 요건을 완화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대출을 제한하던 소득과 신용등급 요건이 일부 풀려 더 많은 이들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서민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이에 앞서 지역의 중·서민들의 금융수요에 부응하고, 제 2금융권을 이용한 고객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다양한 중금리 대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3월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 중금

리상품은 신용등급 4~8등급 고객과, 제2금융권 이용중인 고객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돼 개발됐다. 이 상품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서류접수가 간편하며 대출한도도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리하게 상담을 해준다.

지난 2015년 정부정책에 따라 12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중금리대출은 16개월만에 4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올 한해 들어서 벌써 1100억원을 취급하면서 지역 중·서민들의 힘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꺼리는 중금리대출을 매년 늘려가면서 지역민들의 금융애로에

■ 중금리 대출 취급 추이

날짜	취급잔액	증감
2015.12.10	246억	
2016.12.31	3310억	1년새 3064억 ↑
2017.3.31	4000억	1년새 690억 ↑ (17년 취급액 1100억)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은행권 공통으로 출시한 '사잇돌중금리대출'은 지난 3월 28일 기준 386억원으로 전은행권 사잇돌중금리대출판매액(3440억원)의 11.2%를 기록하는 등 지역 서민들의 자금운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외 함께 광주은행은 정부정책의 서민금융상품인 KJB사잇돌중금리대출, KJB 새희망플러스대출, KJB 징검다리론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업에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를 위한 '직장인퀵론'이

있다.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없는 주부들을 위한 주부퀵론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솔솔한은행대출'은 비대면전용상품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퀵론'은 복잡한 서류없이 필요한 자금을 빠르고 간편하게 지원하면서 연 25% 내외의 제2금융권 금리대출을 6~14%대의 중금리로 전환할 수 있어 이용자가 늘고 있다.

광주은행 송중욱 부행장은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은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이용현상을 분석하고 상품설계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서민들의 가계자금과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67.51 (+7.28)
- ↑ 금리 (국고채 3년) 1.67% (+0.01)
- ↑ 코스닥 628.52 (+9.24)
- ↓ 환율 (USD) 1115.30원 (-3.10)

## 상장사, 지난해 영업이익·순익·매출 증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늘었다. 매출에도 소폭 증가했다.

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33개사(금융업·분할합병사 등 73개사 제외)의 2016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영업이익은 121조3000억원으로 전년(105조5000억원)보다 15.02% 늘었다.

매출액은 1645조7000억원으로 0.80%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8.46% 불어난 80조3000억원이었다.

수익성도 개선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도의 6.46%에서 지난해 7.37%로, 매출액 순이익률은 4.15%에서 4.88%로 각각 상승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석대상 상장사들의 작년 말 현재 자산총계는 2천249억8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82% 늘어났다. 부채는 1199억7000만원으로 2.55% 늘었다.

부채비율은 114.26%로 2015년말 대비 5.56%포인트 낮아져 재무구조도 다소 나아졌다.

연합뉴스

## 인터넷 은행 출범

### 케이뱅크, 문자 대출 등 간편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3일 출범했다. 새로운 은행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고 출범한 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5년 만이다.

케이뱅크는 3일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진복 국회 정부위원장, 황창규 KT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케이뱅크는 24시간 365일 어느 곳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뱅크 에브리웨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케이뱅크는 지점이 없어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 대출 등 대부분의 업무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낮은 수준의 대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청년·소상공인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연 4.2%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간편하게 자문인증만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다. '미니K마이뉴스 통장'은 3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상품으로, 연 5.5% 고정금리다.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출금할 때는 GS25편의점에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 뺄 수 있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에서 찾을 때는 700원이 든다.

송금도 편해졌다. '퀵' 송금은 문자로 간편하게 원하는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송금 금액'을 문자로 보내면 상대방은 케이뱅크 앱 알림을 열어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기 예금 수준의 이자를 보장하는 요구불예금을 출시했으며 앱 내에서 구동되는 '휴대폰 OTP' 등의 기능도 탑재했다.

연합뉴스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개청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3일 오전 개청식을 갖고 납세서비스를 시작했다.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개청에 따라 광산구 외곽지역과 전남 영광군 주민 등 원거리납세자들의 세무민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건설 노동자

### 광주·전남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문... 14.9%만 "만족"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일급)이 15만3000원에 불과하고, 평균 2.45일당 하루 팔로 일감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279만 7000원에 머무는 것으로, 임금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작년 9~12월 최근 1년동안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 근로기록이 있는 퇴직공제가입 건설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급은 평균 15만3000원, 연간 평균 근무일은 149일로 조사됐다.

최근 1개월동안 일한 건설현장 개수는

평균 2.2곳이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일을 하는 근로자가 보다 많은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 불안감도 컸다.

근로계약을 '말로만 통보받았다'는 답변율은 18.7%에 이르렀고, '건설현장에 휴식을 위한 별도 시설이 없다'는 응답도 38.6%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근로환경이 좋지 않았다.

사회보험별로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63.9%로 가장 높고, 건강보험(직장가입) 15.2%, 국민연금(직장가입) 14.7% 순이다. 이는 빈번히 공사현장을 옮기기 때문에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공사현장 일자리를 팀·반장 등 인맥으로 얻었다는 대답이 85.4%에 이르렀다.

건설근로자 이전의 최근 직업은 자영업 28.2%, 판매·서비스직 16.7% 등 순이다.

주된 직종이나 주특기는 일반공(보통인부)이라는 응답이 13.7%로 가장 많았다. 형틀목공 12.6%, 철근공 8.6%가 뒤를 따랐다.

'현재 삶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14.9%만이 만족했다. 반면 37.2%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이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대답은 근로경력 30~40년 된 50~60대의 고연령층을 비롯, 상대적으로 작업시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기능공 분야에서 높게 나왔다.

김대성기자 bigkim@

## 대기업 집단 계열사 1155개

### 한달새 24개사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수는 1155개로 지난달보다 24개사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한화 등 5개 대기업집단이 34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한진 등 8개 집단은 10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한화는 하수 및 폐수처리업을 하는 양주환경의 지분을 취득했고 금호아시아나는 투자사 금호인베스트를 설립했다. CJ는 식품제조업체 송림에프에스의

지분을 취득했고 포스코는 자연과학연구개발업체 포가스텍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농협은 운송서비스업체 세계로선박금융 등 30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한진은 한진해운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매각했고 한진해운은 파산선고하면서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오세아이는 이테크인프라의 지분을, LG는 팜바이오텍의 지분을 매각했다.

롯데는 유니버셜스튜디오오리엔트 자사관리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시스 일호를 청산 종결 방식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 광주 기술인들 실력 대결

### 5~10일 기능경기대회...34개 직종 348명 참가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인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윤장현 시장)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금형 등 34개 직종에서 348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기술력만으로 평가받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기능경기대회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지역의 우수한 기술인들을 발굴해 왔으며, 대회 임상자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 취업하거나 창업해 '선취업-후진학'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임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고, 국가기술자격 능사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오는 9월 제주도에 개최되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숙련된 기능과 탄탄한 기술력은 저성장시대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어 지역경제의 뿌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참가선수의 선전을 기원했다.

문의사항은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 사무국(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062-970-1731)로 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의 임정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Hye Eun Lee

2017 Dinner Show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